

여름 산사 추억



박대성 회화

이미 추분을 넘겼건만 여전히 폭염의 날씨가 기승을 부린다. 8월의 말미를 흠뻑 적시는 줄기찬 빗물, 이는 빈번히 폭우로 돌변하여 반도의 곳곳에 심한 홍수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런 중에 여름의 늦더위까지 가세하고 있어 폭폭 찌는듯한 찜통날씨를 이겨내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다.

이열치열이라 했던가마는 역부족인지라 이럴 땐 더위와 정면대결하지 않고 차라리 피해 가는 것이 현명한 피서의 방법일 것이다. 나는 근간 10여년이 동안 경주의 자연을 빼앗다 시피 침점하고서 매년 뜨거운 폭양과의 대결 보다는 화염매진에 몰두했다. 찬 기운 냉골로 통하는 남산자락 신라천년 도향을 코로 맡으면서 삼릉계곡의 소나무숲에 침적처럼 숨었다고나 할까?

주야로 필묵과 더불어 씨름하는 나의 일상, 획기적 기능의 이것이 나의 피서법이다. 아니 이것을 피서라기보다는 우연히도 부여받은 천혜의 은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도 할 만한 이유가 먼 나뭇잎에 있지 않은 것이 산과 강, 경주의 산천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에 다른 어느곳보다도 뛰어난 환경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한국이 금수강산인 것처럼 우리나라 명산대천마다 큰 사람이 조성된 것은 가까이 풍부한 수자원의 비근함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경주 불국사의 경우는 이와 반대다. 즉 경주 불국사는 물이 요구되는 주변적 조건에서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옛 선현들은 그 자명한 현실극복의 하나로 절단의 지혜를 동

“뉴욕 화실에서 현대미술 정체성 찾아 헤메다 떠올린 불국사

선학과 미학의 복합적 화두 우주로 통하는 창

미친듯이 불국사 전경을 그렸던 현재와 과거를 넘나 들며”

원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한다. 참으로 경탄을 금치 못할 선조들의 대자연관, 놀랍게도 극점의 경지를 보는듯하다.

즉 물이 넘쳐나지 못한 자연지세의 극복을 위해 차경(借景)이라는 편법을 택한 것이고 보면 이 어찌 범상을 초월한 기발한 발상이 아니겠는가.

도함산 정상에 석굴암을 만들면서 동해(東海)라는 대자연의 수원(水原)을 빌려왔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동악(東岳)준령의 용허리에 불국정도 부처의 안상을 내려놓고 무한량 넓고 깊은 동해의 바닷물과 수평선의 태양을 끌어들었다.

이로써 우주간 기공의 핵심인 물과 불을 내재케 하여 가이 지구상에 다시없는 전대미문의 명작건축을 완성해 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의 문화유산이고 보면 이 어찌 신라인 건축가 김대성의 예지가 놀랍다 하지 않을까?

지난 1995년에 세계적 현대미술의 메카로 이름나 있는 뉴욕 17번가 소호에 화실을 내고 있을 즈음이다. 당시 나는 1년여 동안 현대미술의 정체성을 찾아 헤메고 있었다. 그곳에는 복잡다양하게 모여 있는 세계 만국인들과 우뚝 치솟은 빌딩과 넘쳐나는 자동차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질서수의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었다. 이 혼란한 도시 속에서 어느날 갑자기 나는 뒤통수를 후려 치는듯 큰 충격이 휩쓸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우치는 순간 내

가 떠올린 것이 불국사였다. 내 어릴적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고요한 아침의 자연에서 보았던 전경이 선연히 머릿속에 떠올랐다. 갑자기 들끓기 시작하는 경주 불국사에 대한 지극한 향수가 나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한국불교가 던져놓은 선학과 미학의 복합적 화두, 불국사는 우주로 통하는 창(窓)이 있었다. 나는 그길로 즉시 따뜻함과 포근함이 채근하는 경주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스산한 토요일 오후의 어느날 해질녘에 당도한 불국사. 절마당 한편 노송아래서서 무한감회에 잠겨 쳐다보았던 불국사 전경의 위대함이란 그야말로 두다리거 후들거리 버티기 힘든 흥분 그 자체였다. 지금도 그때의 두근거림을 잊을 수 없다.

그날 이후 불국사 묘사체 선정실을 빌리는 대행운의 기회를 얻고서 미친듯이 불국사 전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규모에서 동서간에 워낙 넓은 가람인지라 가시거리가 좁아 전체의 표현에 많은 애를 먹었다. 거기서 완성한 두 점의 불국사 대작을 두고서 생각할 때 아마도 신라의 그 분, 김대성 혼령의 도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다.

신문과 방송은 온통 흥탁한 이야기로 들끓고 행복과 건강을 누리며 사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 과학문명의 우수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맘 흘리고 노력하며 몸으로 일구어 살던 선현들의 삶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것은 나만의 허구적 망상일까? 이렇듯 불국사를 내왕하며 나는 현재 속 과거를 또 과거 속 현재를 생각해본다.



그림 · 박대성

무심에서 빚어낸 부처님 미소

조각가 김은현 展 9월 4일까지

“흙작업에 임할 때는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무엇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없어요. 그저 무심히 흙 만지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그리고자 하는 얼굴이 이미지처럼 떠오르죠. 그것이 동자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성숙한 여인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조각가 김은현 작가의 7번째 개인전 '명상-떨어내기'가 9월 4일까지 종로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김 씨는 서산마애삼존불 금동보살반가사유상 등 민불의 미소를 연상케하는 도조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지금까지 도예의 전통적 기법과 현대 조각의 조형적 감각을 접목해 작품활동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 역시 조용하고 은화하면서 부드러운 한국적 얼굴 이미지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라쿠, 장작가마 등 다양한 소성 방법을 통해 탄생한 작품에는 오랜 시간 명상수행과 금강경 독송을 해온 작가의 수행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작가는 명상을 통해서 얻는 내면의 성찰 그

기쁨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작업을 휴과의 대화이며 교감이라고 말한다. “대학시절부터 명상을 하며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왔어요. 수행은 서양미술을 전공한 저

오랜 명상수행 작업에 반영
동자승 로터스 등으로 승화
20여 점 작품으로 탄생

에게 동양의 정신을 일깨워주었죠. 흙이 내 작품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흙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흙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흙이 되고 흙이 내가 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도출해내죠. 이 과정에서 천년전 순수한 영원을 담아 불상을 새겼던 우리 조상들의 민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과도한 조형작업을 피하고 자연스럽고 소박하며 친근한 얼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흙머리를 타원 혹은 원형으로 만들고 손



'떨어내기' 김은현 작.

으로 주무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눈썹과 눈, 코와 입술의 윤곽을 간단히 붓으로 그려냈다. 이렇게 작가는 석고를 성형기법으로 합장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떨어내기' 흙을 맡아올리는 코일링기법으로 동자승의 모습을 표현한 '내가 나에게' 등 민불의 미소를 담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김은현 작가는 선화에도 서울대 조소와 이화여대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과 뉴욕 도쿄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를 열었다. (02)730-7818 정혜숙 기자

용문사 산사 콘서트...9월 1일

수익금 전액 장학금 전달

양평 용문사가 9월 1일 오후 7시 용문사 경내에서 12회 '산사 나눔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좌석을 유료화하고 수익금 전액을 지역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티켓은 지정석 3만원 자율석 1만원으로 현재 지정석 6백석은 매진 상태다.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은 “단순한 음악회를 떠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그동안 아프리카 말라이 기술학교 건축 비용 지원, 스노우보드 청소년 육성 등에 힘써왔다. 이번 콘서트 수익금 역시 전액 어려



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취지를 전한다. 장사익, 박안규, 정용수님 등이 출연하며 비보이 등의 공연도 이어진다. 공연전에는 장학금 및 환자 지원금 전달식도 진행된다. 호산 스님은 “이번을 계기로 꾸준한 장학사업이 진행 될 것이다.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 청소년 꿈나무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031)773-3797

덕주사 종교평화 음악회

월악산 덕주사가 9월 8일 경내 마당에서 '제 6회 종교평화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한영애,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 최현아, 마하연 합창단, 김영수 신부(기타 연주)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덕주공주 다례제 및 육법 공양, 종교 평화 합창 공연에 이어 산사음악회로 이어진다.

원적정사 산사음악회 펼쳐

깊어가는 가을 원적정사가 9월 1일 오후 7시 원적정사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펼친다. 이번 음악회에는 김수희 이광조 임지훈 최현아 니르바나합창단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 등이 참여하며 여현아 씨가 사회를 맡아 대중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 총 정 운송 (경남 양산 상북면 청운사)
-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 중앙원로 의원 일파 (경북 청도 부야 삼화사)
-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 중앙문화원장 소현 무향 (천수바라부, 살풀이)
-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서구 약사사)
-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 이 사 장 해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 중앙총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 해공.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승 청운암)
- 규 정 부 장 수연 범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미)
- 감 찰 부 장 서암 (부산 북구 만덕 약수사)

-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 중앙총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 포 교 원 장 운암 (경남 의령 봉수 문황사)
-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 부산총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 대구총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 사천총무원장 무무 현수 (경남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부도 수련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신신맞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